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
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명기 5장 16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전 충현가족이 함께 참여할 『시온성대행진』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표어

5월 28일 오후7시	시온성대행진 지휘관임명식
6월 4일 오후5시	준비기도회
6월 4일 오후7시	출정예배
6월 6일 새벽5시	시온성대행진 새벽기도회
6월 6일 오전10시	충현 백일장
6월 11일, 18일	충진군의 날
6월 12~14일 오후7시	저녁특별집회 (이상근목사, 김명혁목사, 이한빈장로)

시온성대행진의 출발 호각이 불어졌다.
홍해작전과 여러교작전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예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 충현
성도들은 시온성대행진을 통하여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케 된다.
(위임목사 특별메시지 별항 참조)

6월 6일 오전5시 새벽기도회로부터 실시될
시온성대행진은 오는 20일까지 15일간 진행
되며,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
기 위해 새로운 영적 충전을 받게 된다.

행사개요에 의하면, 이번 행진의 주제찬송
은 248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확정하고, 새벽기도회 강사는 이종윤 목사가
맡아 인도하기로 했다.

저녁특별집회는 12일(월) 「거듭난 인간」
제목으로 이상근 목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13일(화)에는 「성숙한 신자」 제목으로 김명
혁목사, 그리고 14일(수)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제목으로 이한빈장로가
강의하게 된다.

6월 6일에는 충현교회학교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가 실시되고, 16일에는 해있는
동안 전교인들의 금식일이 선포되고, 여기서
나온 금식미 헌금은 충현북한지교회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또 교회학교 충진군의 날은 6월 11일 주일
에 실시하고, 장년 충진군의 날은 6월 18일
주일에 실시키로 했으며, 시온성대행진 발대
식은 5월 28일 주일저녁 예배시 갖기로 했는
데, 이 시간에는 참모, 행진대조직 지휘관
임명식도 있다.

시온성 대행진을 위한 준비기도회는 6월
4일 주일 오후5시 갈릴리홀에서 진행되는데
지휘관 및 동원반장 이상이 참석한다.

그리고 시온성대행진 출정예배는 6월 4
일 오후7시에 실시하며, 이날 강사는 위임
이종윤목사가 설교를 맡아 인도한다.

행진대 편성은 개성행진대는 1교구, 해주
2교구, 사리원 3교구, 황주 4교구, 진남포
5교구, 평양 6교구, 선천 7교구, 신의주 8교

구, 중강진 9교구, 원산 10교구, 함흥 11교
구, 청진 12교구, 회령 13교구, 온성 14교구
로 편성했다.

조직은 행진감독은 교구 교역자로 구성했
으며, 행진대장은 교구장, 지역장 장로, 행진
부대장은 부지역장 권사, 협력구역장 집사,
행진반장은 구역장, 집사, 권찰, 그리고 행진
대원은 전교인으로 조직을 완료했다.

이번 행진의 행동지침은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원리로 오직 하나
님께만 영광돌리기로 했다.

각 참모별 세부지침은 이번호에는 동원참
모부만 발표하고 계속해서 본보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동원참모부 세부계획은
3면을 참조)

위임목사 특별메시지

시온성대행진의 출발호각을 불면서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시온성을 바라보
면서 힘찬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민
충현의 가족들은 험난한 홍해도 건넌고
피곤하고 거친 광야길도 구름기둥, 불기둥
의 인도를 따라 감사와 환희의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 조국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충현인의 상은 거듭
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충전을 받기
위해 우리는 시온성 대행진의 출발 신호
를 알리는 호각을 불게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쉬임없는 기도의
능력으로만 시온의 백성들은 이 행진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세계에
대한 환상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충현의 가족들은 오직 말씀
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원리



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
도록 이 행진을 더욱 힘차게 최선을 다하
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은 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는 확신을 갖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새로
운 이정표가 마련되는 기복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름때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새벽마
다 물려줄 충현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
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주안에서 목사 이종윤

카메라 초점

▲ 선교관 5층에 있는 당회실에서
매월 정기당회 및 임시당회가 열리고 있다.

**탁아부 첫번
초청인사와 학부모 좌담회**

일시: 1989. 5. 17 12시 30분
장소: 영동관 5층

▲ 탁아부가 개최한 초청인사와 학부모좌담회
(말씀전하는 이종윤 위임목사)

한국교회 성장연구원 1학기보다 4백여명이 더 등록 각종통계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
은 제2학기 목회자 세미나 등록현황 및 직분
별, 지역별, 교파별분포 현황을 발표했다.

5월 22일 현재 총등록자 수 1,686명이나,
이번 통계는 5월 16일 현재로 등록자 수
1,584명을 기준으로 통계이다.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직분별

	목사	강도사	남전도사	여전도사
등록자(명)	1,117	76	245	146
백분율(%)	70.5	4.8	15.5	9.2

2) 지역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록자(명)	838	516	34	117	35	44
백분율(%)	52.9	32.6	2.2	7.4	2.1	2.8

3) 교파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기타
등록자(명)	1,225	69	77	58	59	4	92
백분율(%)	77.3	4.4	4.9	3.7	3.7	0.2	5.8

지 상 강 단

본문 / 벤전 4:7~1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살기 좋은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은 기근과 지진, 전쟁의 슬픈 함성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어둡고 캄캄한 밤으로 불안하고 위태하며 유희의 함성이 가득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만물의 마지막, 즉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는 의미 속에는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가 끝이 나는 온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뜻이요 최종 심판이 가까왔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가까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세에 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생각과 태도를 정상화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내게 주신 시간의 남은 때를 잘 선용하여 매일 매일의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수 마귀의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게 되며 마귀에게 삼켜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벤전 5:8).

것처럼 사람에 대한 태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세계명이며 최대의 계명입니다.

말세의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가 남을 사랑치 않으며 무관심하며 방관하고 자기만을 사랑하여 오히려 적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줄 알고 인식하거나 댓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희생합니다. 또한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2.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서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영적 호흡이며 영적 대화입니다.

말세에 해야 할 일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해야 서로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도록

시작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미움이 싹트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꿈을 가진 동시대의 젊은이요 낭만을 함께 나누어야 할 순진한 동지를 소사제한 동의대 사건은 이 세대에 팽배해 있는 미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4. 서로 대접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남을 먼저 대접함으로 시작됩니다.

올바른 봉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모든

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연약으로만 알고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적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며 천국 일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 지식과 지혜로 좌우하려는 교만입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3.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중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기도인 하는 것이므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며 힘들이 하거나 짜증내는 일도 없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편이며

자기 자신은 물론 남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악해 질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올바른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져오고 이 민족과 세계에 소망과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김학진(목사, 2교구, 예배위원회, 장년부지도)

교구가 활성화되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정한 이치다.

우리 교회가 교구를 중심으로 하여 심방, 경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일선 구역장과 권찰들의 말없는 수고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매주 구역을 돌보고, 금요일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한주간 동안의 각 가정 형편을 보고 받으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일 등을 이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면 지역이 확장되고, 지역이 확장되면 교구가 더욱 부흥하게 된다. 교구가 부흥되면 교회는 성장해 되는데, 이러한 일은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인들의 결속에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지금 우리 충현교회는 14개의 교구로 형성

장로칼럼

교구활성화의 지름길



우기전
(장로·교구위원장)

되어 있는데, 금년말 목표가 1만 세대 장년교우 2만명 출석이다.

4월말 현재의 교세 성장속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구 산하의 모든 구역일꾼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 구역의 권속들을 믿음 안에서 생생하게 돌본다면,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는 병폐는

사라질 것이다.

특히 우리 교구위원회는 5월 둘째주일부터 당회의 승인을 얻어 구역예배 공과인 「충현다락방」을 「주간충현」에 게재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교인들이 읽는 신문인 「주간충현」에 「충현다락방」이 게재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역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도 구역 성경공부의 도움을 얻었는가 하면, 매주 각교구 간사들이 배포하던 수고스러움도 덜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제정면에서 긴축이 되었고, 교회적으로는 플러스요인이 상승된 점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이중으로 배포되는 년센스도 있긴하지만, 교구 활성화의 지름길이 더한층 진일보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기대도 자못 크다.

교구위원과 일꾼들의 이해와 협조, 계속적인 기도부탁도 이 지면을 통해 부탁드리다.

스찬서적, 27. 성경핸드북/ 로렌스리처즈, 여수문, 28. 예수님의 삶과 복음연구/ 서울 장신성서연구원 편, 소망사, 29. 기독교 인간관/ 그레삼 에이첸, 나침반사, 30. 신앙생활백과/ 제임스 패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31. 과란불꽃 허락하신 사람을 찾아서/ 월터 트로비쉬, 한국기독교학회 출판부, 32.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로날드 윌레스, 기독교 문서선교회, 33. 성경은 언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드 핑크, 여수문, 34.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 폴 데이비스, 정신세계사, 35. 한국기독교와 신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풍만, 36. 통일교 원리비판/ 원세호, 국제신학연구사, 37. 인간 그 존엄한 생명/ 프란시스 웨퍼, 라브리, 38. 통곡하는 태아들/ 김필우, 소망사, 39.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클라런스 베스, 생명의 말씀사, 40. 가나안의 편지/ 일가희, 규장문화사.

바울·디모데 남전도회 6월 2일 특별철야기도

바울·디모데 남전도회 협의회 산하 전체 회원들의 특별 철야기도회가 오는 6월 2일 오후11시부터 3일 새벽3시까지 아멘홀(본당 지하)에서 갖는다.

이날 철야기도회는 시온성대행진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현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남전도회 발전을 위하여 기도케 되는데 이날 철야기도회 인도는 남전도회 지도교역자인 이원길목사가 담당한다.

충현교회 남전도회 회원들의 전원 참석을 주축측은 바라고 있다.

신간도서안내, 충현도서관 제공

충현도서관(관장 김원선장로)에 지난달에도 많은 도서가 들어왔다.

도서관측에서 제공한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

1. 동물의 피와 속죄(레위기 주석)/윤승은, 나침반사, 2.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마크 킨저, 두란노서원, 3. (창조주의 비밀) 생서의 학/ 단아한, 누가, 4.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로이드 오길비, 보이시사, 5. 당신의 시련에는 뜻이 있다/ 조셉 스톤월, 나침반

사, 6.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역, 영음사, 7. 아이들을 위한 교육/ 수잔 셰퍼 맥콜라, 라브리, 8. 요한칼빈의 신학진수/ 사무엘덴, 성광문화사, 9. Q.T의 이론과 실제(조금용)/ 두란노서원 편집부 편, 두란노서원, 10. 혁명만이 변화인가? 브라이언 그리피스, E. V. P., 11. 생애의 반역자/ 채위현, 장광출 공저, E. V. P., 12. 역사 비평학의 종말/ 게르하르트 마이어, 여수문, 13. 70인역과 성경 정경연구/ 한의선, 성광문화사, 14. 하나님 말씀/ 존 맥아더, 엠마오, 15.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교회문제연구소 편, 풍만, 16. 칼빈과 설교/ 박진택

편지, 나비, 17. 북한도 복음화하라/ 이작편, 엠마오, 18. 종교개혁 신학사상/ 이형기,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 주님의 제자훈련 계획/ 로버트 콜만, 두란노서원, 20. 타문화권 선교의 문제해결/ 박영호, 기독교문서선교회, 21. 선교학: 선교의 이론과 실제/ 박영호, 기독교문서선교회, 22. 사도행전 강해/ 캠퍼스출판, 아가페, 23.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 J. L. 패커 등저, 나침반사, 24.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로빈 맥슨, 케리 프리슨 공저, 생명의 말씀사, 25. 신약성서의 방법과 실제/ 박영호, 충신대학출판부, 26. 이사가(반즈 성경주석) 상, 하/ H. C. 류폴드, 크리스

시온성대행진 동원참모부 세부지침

▲ 각행진대 동원

1. 각 행진대는 행진감독 지도 아래 각 행진 대장 중심으로 조직을 활용하여 최대한 동원한다.
2. 행진 감독과 행진대장은 수시로 조직운영을 확인독려하며 시온성 비상연락망 조직 및 동원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5월 31일(수)까지)
3. 각 행진대 간사는 출석통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동원을 독려한다.
4. 각 행진대의 지정 동원일을 정하여 주력동원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동원한다.

▲ 지정일과 해당교구

6월 6일(전행진대), 7일(1, 14교구)
8일(2, 13교구), 9일(3, 10교구)
10일(4, 9교구), 11일(5, 8교구)
12일(6, 12교구), 13일(7, 11교구)
14일(1, 14교구), 15일(2, 13교구)
16일(3, 10교구), 17일(4, 9교구)
18일(5, 8교구), 19일(6, 12교구)
20일(7, 11교구)

▲ 총진군의 날

- ① 교회학교 총진군: 6월 11일(주일날 집회)
 ㄱ. 목표: 6,000명 돌파
 ㄴ. 방법: 1) 교육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여 주관케 한다.
 2) 각 부별로 특별집회를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 ② 장년 총진군: 6월 18일(주일날예배 1부-4부 영어예배)
 ㄱ. 목표: 10,000명 돌파
 ㄴ. 방법: 1) 가족 총동원 운동 전개
 2) 1세대, 1명 초청운동 전개
 3) 반별(구역별) 잃은양 찾기 운동 전개
 (장기 결석자, 쉬고 있는자)

▲ 수송 방법

- ◎ 사랑의 차 동승하기 운동
- 1) 반장은 차량을 알선하여 편의 제공하며 만차로 운행하게 한다.
 - 2) 반(구역) 성도 중 차량이 없을 때는 영입용 택시를 협의 준비하여 운행하게 한다.

- 3) 행진 대장은 이를 협력하며 감독한다.
- 4) 수송에 공이 있는 성도에게 선물을 지급도록 한다.

충천 프리즘

☆ 경건한 예배분위기 조성

예배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그리고 홍보에 힘입어, 최근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집회의 예배분위기가 경건하고 질서가 잡혔다.

워낙 장소가 넓은 예배당인 관계로 예배 참석자들이 제멋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바람에 보기에도 흉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시각에도 집중력이 결여되어 왔었는데, 예배위원회 산하 안내 위원들이 품위있고 세련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예배 참석자들을 앞자리부터 일일이

안내하며 앉혀서 보기에도 좋고, 경건된 일일이 예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 시온성대행진 참모실이 분주하다

9일 앞둔 시온성 대행진 참모실이 분주하다. 각분야별로 준비계획, 실천방법, 예산편성,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전략, 가장 중요시 되는 동원문제에 이르기까지 각 참모들은 머리를 싸매고 논의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미 행진본부 사무실에는 현황판이 설치되었고, 우리나라 지도에 이북지역의 명칭과 화살표가

◎ 은혜집에 취침하기 운동(원거리 교인들에게 숙소 제공) 남자: 유치부실(소석관 205), 여자: 영아부실(아멘홀), 탁아부실(베들레헴홀)

▲ 동원인원

평일 동원인원 3,000명 이상

인원수	250명 이상	200명 이상
교 구	1, 2, 3, 4, 5, 11, 12	6, 7, 8, 9, 10, 13, 14

표시되었는가 하면, 참모진들은 빈틈없는 행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회의를 별도로 갖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홍보참모부는 시온성대행진 홍보를 위해 교인용 웹북을 제작완료했고, 5월 26일엔 교계신문, 방송 기자회견, 5월 29일엔 일간신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온다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선포에 진력하고 있는 우리 충천교회는 예배당 헌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들의 방문이다. 매주일 3부예배의 2층 외국인 석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

이 꼭 차고, 교회 통역시설(5개 국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충천교회 본당, 선교관, 소석관 시설을 돌아보며 「원더풀」을 연발하고, 푸르게 조성된 정원, 주변들을 돌아보며 한국의 미를 감상하기도 한다.

요즈음엔 평일에도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모습이 엿보이는데, 모처럼의 우리교회 방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따뜻한 인사와 정다운 악수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며 봄이 어떠할지?

성장연구원 · 부부대학 일원화 조직완료

한국교회 성장연구원 및 부부교양대학 업무진행에 따른 조직이 지난 임시당회(5월 21일)의 승인을 얻었다.

조직명단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이종운 목사
- ▲원감/ 이웅선 장로
- ▲부원감/ 오태희 장로
- ▲지도/ 이조웅 전도사
- ▲부지도/ 한용관 전도사
- ▲총무/ 이종국 장로, 위원/ 김태영
- ▲기획/ 이조웅, 위원/ 김영구, 김성윤, 김익경, 윤용규, 한용관
- ▲행정/ 김재명, 위원/ 김여순, 박인건, 한경선, 오인근, 허명호
- ▲회계/ 박철훈, 위원/ 김태연
- ▲홍보/ 오정수, 위원/ 이승철, 김 신
- ▲진행/ 윤용규, 위원/ 전교역자
- ▲안내/ 최순복, 위원/ 김정성, 현정남, 여진도회 각지회
- ▲차량통제/ 문홍구, 위원/ 차량관리부

위원

탁아부 초청인사와 학부모 좌담회

탁아부(부장: 정운석 장로)는 지난 17일 12시 30분 베들레헴홀에서 초청인사와 학부모 좌담회를 가졌다.

3백여명의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학부모가 참석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1부순서를 이종운위원장사의 격려의 말씀을 들은 후 지하2층 메추라기홀에서 식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계속해서 2부 순서는 베들레헴홀에서 좌담회를 가졌는데, 탁아경험을 가진 민경애선생(미국 L.A 주립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의 「탁아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그리고 서은지, 강기정, 정사랑 아기의 어머니가 나와 발표가 있었다.

다음 글은 사랑이 어머니 발언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엄마입니다. 탁아부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대할 때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보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는데 수고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연년생인 두 아기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권유하셔서 탁아부를 찾게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탁아부실이 떠나가라 울어재키는 것을 뒤로 하고 도저히 본당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몇주는 옆방에서 비디오로 예배드리며 시간의 중간중간 잘노는가 하고 유리창으로 확인해야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경건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사랑이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본당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며 내 아이들 때문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예배의 시간 일본 일초도 헛되게 드릴 수 없고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본당 제일 앞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탁아부에서 하나하나 습관을 통하여 배운 것이 우유병을 잡고도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하며 밥을 먹기 전에는 아빠 엄마에게도 무릎을 꿇도록 합니다. 영원이가 영아부

“탁아부에 아기 맡기면 편안하고 경건한 예배드려”

집에 가면 교회올 때 마음보다 더욱 무거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에 앞서 주위 성도들께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불쾌감을 준것 같아 저 자신보다 남에게까지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아부와 영아부가 나가기 전에는 영아부에서만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영혼은 갈급하고 예배시간이 즐겁기 보다는 오히려 아이들하고 새롭하며 눈치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탁아부가 신설되었을 때 처음에는 탁아부를 찾지 않았지요. 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아기도 꼭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탁아교육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누누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탁아부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탁아부에 맡기라고

로 등반되었을 때는 첫주만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음주부터는 ‘엄마 예배드리고 오세요’하며 혼자 영원이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부모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탁아한다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일이고 부모님들의 경건한 예배를 듣는 일이지요.

충천의 모든 아기 부모님들은 탁아부에 아기를 맡기시면 편안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아기를 맡겨서인지 몰라도 탁아부 선생님 한분 한분이 천사 같기도 보이며 얼마나 좋으신지 저도 사랑이의 선생님이 좋지만 사랑이도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남이 누리지 못하는 탁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민족위한

임진각 기도회

「시온성대행진」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세상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건만 단회진 북녘땅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두고 온 산하, 헤어진 부모형제,

허물어진 교회가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되기 위하여 기도하실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기도회 안내 □

일시 / 1989년 6월 13일(화) 오전10시30분(교회출발)

장소 /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

유의사항 / ① 신청은 2교구 사무실로(차량준비 관계로 8월 4일까지 접수마감)

② 교통비: 1인당 2천원(신청시 납부바람)

③ 당일 점심은 2교구가 제공합니다.

주최 / 시온성대행진 본부

주관 / 제2교구(교구장: 김원선 장로)

여전도회 활동 · 이모 저모 ·

죽도교회와 마리아7지회

저희 마리아여전도회 7지회에서 지원하는 죽도교회를 유순화 전도사님과 오영숙 집사(전도부장)와 함께 방문하고온 소식을 여러 성도님들께 전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도교회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에 위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작은 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 섬선교회(최종민 강도사)에서 자체의 능력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작은 섬부터 도시의 큰 교회와 연결시켜 주는 가운데 금년부터 충현교회가 지원하게 되었고 그 일을 저희 7지회 마리아여전도회가 맡아 월 50,000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60여명 가운데 국민학교 이하 어린이가 15명이며 섬을 도보로 한바퀴 도는데 20여분이 소요되는 작은 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18년전 예수님을 영접한 여집사님 두 분이 지도자도 없이 가정에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간절하게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육지의

어느 권사님을 통하여 8년 전에 교회 건물을 세워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당이 세워진 뒤 지도교역자도 보내 주셨으며 지금은 세번째 부임하신 배강호 전도사님께서 서울 충신대학원을 다니시면서 목회하고 계셨고 사모님께서는 동네 아이들



▲ 작은섬에 세워진 죽도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입구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사택건축시 좋은 일기·물질위해 기도를!

을 불러모아 교회당 안에서 무료로 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여도 보내지를 않고 부모님 눈을 피하여 선교원에 왔다간 아이들에게 호된 매질을 하며 핍박을 하였으나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어른들도 감동을 받고 이제는

자유롭게 선교원을 다니며 세상지식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부모님들께 전도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3~4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씩은 섬 전체가 굶을 하며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어떻게 두 분 집사님이 믿음을 지키셨을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이와 같이 오늘날 저 북한 땅에서 눈물로 해방의 날을 고대하며 부르짖는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벽 6시 20분, 가족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7시간이 넘는 시간을 두 번 버스로 갈아타고 또 터미널에서 버스

내달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정성어린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죽도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전도사님의 여름방학 기간에 사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좋은 일기와 부족한 물질을 위하여, 또 교회입구 땅 주인의 마음이 감동되어 땅을 팔게 하시고 막혀있는 담을 열어 마을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넓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날도 이롭도 빛도 없이 주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배강호 전도사님 내외분께 주님의 위로하심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함께 동행해주시는 유순화 전도사님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7지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해하며 협조해 주신 장국찬씨(오영숙집사 남편), 최준호씨(석귀수집사 남편) 두 분께도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석귀수(집사·마리아여전도회 7지회장)

구역예배를 위한

1989년 6월 2일(금)

충현다락방

교구위원회 제공

제22과 베엘로 올라가라

성경: 창세기 35:1-15

요절: 우리가 일어나 ·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3)

찬송: 197, 204, 206장

1. 베엘은 어떠한 곳인가?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야곱은 멀리 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다. 그 피난 길은 200리가 넘는 길이며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의 길이었다.

야곱이 피하여 가던 중에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날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과 결심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아버지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하였다.

바로 이곳이 베엘이다. 베엘은 기도의 자리이며 결단의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가지게 된 자리이다.

2. 세겟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고 결혼도 해서 열 한 아들을 낳았다. 20년 전의 야곱은 하란땅으로 도망해 가는 나그네의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으나 20년 후의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가졌었지만 지금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귀찮고 고독한 나그네로 베엘에서 하나님께 돌을 세우며 기도했던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겟 땅으로 갔다. 야곱은 약속의 자리 베엘로 가지 않았다. 그는 황무지이고 산골짜기인 베엘을 버리고 살기 편한 세겟을 택하였다.

야곱의 가정은 세겟에서 우상과 접하게 되었고 야곱의 식구들 가운데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적당히 살다가던 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 여자들과 놀다

가 그곳 하물왕의 아들 추장 세겟의 연애를 받아 능욕을 당하였고, 이를 분히 여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겟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 누워있는 기회를 타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야곱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수습할 길이 없었다. 야곱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3.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떻게 하였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다. 그리고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라!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낚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 자산을 정결케하고 새 의복을 입도록 하자. 그리고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자” 야곱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3가지 큰 축복을 주셨다.

시온성 대행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먹을 것 걱정없고 살기에 편안한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한 편으로는 돈의 우상과 세상의 우상을 따르고 있지 아니한가?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버리자. 온갖 우상을 청산하자.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고 시온성을 향한 대진군에 앞장서자.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라!”

함께 생각합시다.

1. 베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야곱의 서원은 무엇입니까?(창 28:12-22)?
2. 압박강에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창 32:22-29)?
3. 야곱이 베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은 후에 받은 3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창 35:10, 11)?
4. 나와 내 가정의 회개하고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좇아 살며 주의 일을 한다면 서 험진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 갖을 탐하는 우상을 청산하고 안일한 삶을 버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